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5

“우리도 함께 뛰다”

생활 속 ‘물의 소중함’ 일깨운다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마라톤을 통해서 가뭄극복이라는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 임직원 40명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표방하는 수공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차질없는 용수 공급은 물론 섬지역 급수차 지원, 대체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와 함께 지역본부 및 산하 4개 관리단은 명절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담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설비를 점검·보수하는 기술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관중 관리처장은 20여 년 전 결혼식 당일 식장인 임동성당으로 향하다 광일 마라톤 행사 때문에 1시간 동안이나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른 아픈(?) 기억이 있다. 등산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김 처장은 “건강한 정신에서 생산성이 온다. 이번 행사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의 선전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임일순 운영처장은 마라톤 마니아이다. 지난 1998년 본부 근무시 마라톤 동호회를 창단해 3년간 회장을 맡기도 했다. 풀 코스만 8회를 완주했고 하프 코스도 30여 회를 달렸다.

가뭄 극복·고객 서비스 실천

하프 코스에 참가하는 임 처장은 “마라톤의 매력이라면 42.195km를 완주하고 나면 ‘오늘 내가 뭐가 해냈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다.

고동환 경영팀 부장은 아들 준영(초등 2학년)과 함께 5km 코스를 달린다. 바쁜 직

장생활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산행이나 스포츠를 통해 다하고 싶은 생각이다.

박미선 대리 역시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신영범군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다. 박 대리는 “청소년기인 아들에게 공부 스트레스의 탈출구로 운동과 음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아들과 대화하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최홍규 본부장은 “가뭄극복과 함께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직원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효덕초 축구교실

“축구를 통해 단련해왔던 애들의 체력과 단결력을 마라톤 대회서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효덕초 축구교실을 운영해 온 이재우씨는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가는 기대가 크다. 초등 2학년~6학년 생들 30여명. 마냥 개구쟁이 같은 이들이 5km 구간을 달리면서 지구력·협력심 등을 직접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구력·협력심 직접 체험

백마디의 말 보다 단 한번의 체험으로 더 큰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씨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지구력이 약한 요즘 애들에게 축구교실을 통해 운동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애들 정신수련에 마라톤이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고 대회 출전 이유를 밝힌다.

축구교실은 토요일 3시부터 효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30분 동안 운영된다. 드리블 등 개인기와 더불어 그룹별 경기를 통한 축구전술도 가르친다. 또한 정기적으로 YMCA 소속 다른 축구교실팀과 시합도 갖는다.

또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실내 볼



광주효덕초 축구교실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5km 부문에 출전, 한명도 빠짐없이 완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올 유소년스포츠 클럽 운영”

림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고교시절 불림 선수였던 이재우씨는 “어렸을 때 여러 종목의 운동을 해보는 것이 고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인지 여름에는 배드민턴 교실도 연다.

특히 이 씨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애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고 활발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올해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씨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밖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면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베스트 9’ 시험무대



KIA가 21, 22일 일본 미야자키 사이토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두차례의 연습 경기를 가졌다. 1차전을 2-3으로 패했던 KIA는 2차전에서 4-0으로 완승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연습경기.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日 야쿠르트와 연습경기 1승 1패

용병 투수 로페즈·구투스 합격적

유격수 이현근·3루수 안치홍 구도

‘베스트 9’을 향한 시험무대의 막이 올랐다. KIA 타이거즈가 21, 22일 일본 미야자키 사이토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 경기를 치렀다. 앞서 3차례의 자체 청백전과 고려대학교와 연습경기를 가졌지만, 프로팀과의 경기는 이번 전지훈련 들어 처음이다. 결과는 1차전 2-3패, 2차전 4-0승. 야쿠르트와의 경기는 승패와 관계없이 2009 시즌의 전력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특히 이들 경기에서 용병 로페즈, 구투스 이 합격점을 받았다.

21일 선발로 나온 로페즈는 스몰볼을 구사하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실전 감각 테스트를 받았다. 자체 청백전에서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을 기록했던 로페즈는 야쿠르트 6명의 타자를 별타로 돌려세우며 마운드 전망을 밝혔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까지 찍었다.

8개 구단 투수들의 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KBO 심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쿠르트전 주심으로 나선 오석환 심판은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한 변화구가 다양하며, 공의 변화각이 커 타자들에게 까다로운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구력이 안정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용병 구투스도 22일 2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2이닝 동안 삼진 1개를 곁들이며, 여섯 타자를 별타 처리했다. 구투스는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에 컷백스트라이크를 상당히 위력적이며, 구위 자체로는 로페즈보다는 한 수위라는 평가다.

KIA에서 마지막 야구 인생을 시작한 김영수도 좌완 릴리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야쿠르트와의 1차전 세 번째 투수로 나온 김영수는 2이닝 동안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다. 직구 구속은 142km를 기록했다.

중심 타선의 방향도 가능해 볼 수 있었다.

지난 가을부터 함께 훈련을 해온 ‘단팍’ 나지완과 최희섭은 3번과 5번으로 출전해 훈련의 성과를 평가받았다.

3번 타자로 나왔던 나지완은 4차례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상대 투수로부터 2개의 볼넷을 얻어내는 등 한층 좋아진 선구안을 보여줬다. 8회 수비때는 나카오의 깊숙한 타구를 플라이로 처리해 박수를 받았다. 최희섭의 출발은 3타수 1안타 1볼넷. 경기를 지켜본 김용희 SBS 해설위원은 “연습 배팅 때와 실제 경기에 들어설 때 타격이 달랐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성공을 위한 실패라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조범현 감독을 가장 머리아프게 하는 내야는 유격수 이현근과 3루수 안치홍의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2009시즌 4강 순항을 노리는 KIA 조범현 감독의 ‘육식가리기’는 25일 요미우리, 27일 두산과의 연습경기에서 계속된다.

/wool@kwangju.co.kr



윤여춘 마라톤 이야기

① 즐기면서 달려라

마라톤대회가 일반인에게 처음 문호를 개방했을 때는 기록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달렸었다. 완주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승리자요 모두가 1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마라톤대회는 완주보다도 순위나 기록단축으로 변모했다. 기록을 단축하려고 이를 악물고 질투거리며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한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치지 않다.

“완주 한 사람들 모두가 승리자”

달리기의 모든 것이 장미빛만은 아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흥미를 잃게 하여 중도에 포기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달림이 즐거운 달림이 된다. 좀 여유 있는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즐거운 달림은 달리기 그 자체가 목표

요 보람인 까닭에 자기의 순위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의 표정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쌓여 있어 모질고 험난한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즐거운 달림은 1등이라는 순위와 기록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모두가 1등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완주했다

는 성취감과 최선을 다했다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행복함이 있다. 얼굴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지지 않고 모두가 환한 표정들이다. 코스에 대한 불만도 없고, 날씨도 탓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겁기만 하다.

모두가 이런 달림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이 새롭게 변할 것이다.

<MBC 마라톤해설위원>

KIA -야쿠르트 연습경기 찾은 김용희 SBS 해설위원

“팀웍 UP... 호랑이 강해졌다”

“호랑이들이 강해졌다.”

“미스터 롯데” 김용희 SBS 해설위원이 KIA 타이거즈 전지훈련 캠프를 찾았다. 21일 일본 미야자키 사이토 구장에서 열린 KIA와 일본 야쿠르트의 연습경기를 관전한 김 위원은 팀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시즌에도 KIA 캠프를 방문했던 김 위원은 지난해와 달리 주전들의 부상 없이 가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고 밝혔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팀의 위계질서와 선수들 간의 신뢰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한층 팀이 강해졌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빅

조이’ 최희섭을 우선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지나해에 비해 몸이 한결 가벼워졌는데, 살이 빠졌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선수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스윙면에서도 몸이 먼저 나가면서 공을 밀던 것과 달리 팔이 앞서 나가며 임팩트 능력이 좋아졌고, 간결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희섭은 4타석에 나와 1개의 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김 위원은 발전해 가는 과정이 보인다면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KIA 4강의 키워드로 ‘최희섭과 서재응’으로 꼽았던 김 위원은 올 시즌은 ‘내



야’가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투수, 유격수, 중견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이 강해야 하는데 유격수가 고질적이 KIA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만큼 변동도 많고 안정감이 떨어진다.”

2009년은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4강 싸움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난해 4강 팀 SK, 두산, 롯데, 삼성의 전력은 여전히 강하다. 최하위를 기록했던 LG도 이진영, 정성훈의 영입으로 전력에 급상승했다. KIA는 특별한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전들의 부상이 없는 만큼 흥미로운 4강 승부가 이어질 것이다.”

/wool@kwangju.co.kr